1995년 / 불교성지순례전문 20년
성산여행사
02)720-0111 인도, 실크로드, 중국

불교신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시다
ARS 060-700-0048
불교신문 법보시 후원(한통당 5,000원)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60년 4월 27일 (2016년 / 단기 4349년 음력 3월21일) i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3197호 수

조계사 경내 수유실 생겼다

'미래 부처' 아기 위한 '행복한 공간' 문 열어

서울 조계사 경내에 '엄마와 아기의 행복한 공간'인 수유실이 처음 생겼다. 조계사(주지 지현스님)는 지난 21일 관음전 앞에 설치한 수유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조계사 수유실은 주지 지현스님의 남다른 포교 원력에 의해 탄생했다. 지난해 주지로 취임한 스님은 아기를 데리고 절에 오는 엄마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 올 초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2개월여에 걸쳐 건물을 짓고 이날 현판식을 진행했다.

두 평 정도의 아늑한 공간에는 엄마가 편안하게 모유와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간이소파와 수유쿠션, 기저귀, 세면대, 물티슈 등을 비치했다. 수유실은 전통 가옥 형태의 1층 규모이며, 건물 벽에 그림을 그려 넣어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조계사 신도 뿐 아니라 아기가 있는 엄마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문을 열어 놓는다.

이날 지현스님은 조계사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사찰에 엄마와 아기를 위한 수유실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현스님은 "대한민국 어느 절에도 젊은 엄마와 아기를 배려한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루에 한명 밖에 오지 않는다고 해도 미래 부처님이 될 아기를 위해 수유실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 또 향후 경내에 가족화장실과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계사는 수유실 현판식에 앞서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관불의식 및 금박공양을 봉행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서울 조계사 경내에 아기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처음 마련됐다. 사진은 지난 21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된 '엄마와 아기의 행복한 방' 수유실 현판식 장면. 신재호 기자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5월14일) 봉축행사 시작을 알리는 4사자삼층석탑등 점등식이 지난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됐다. 사진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상 정원에서 바라본 4사자삼층석탑과 광화문.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세상행복 발원 '사사자삼층석탑등' 밝히다

광화문광장·서울 거리곳곳 부처님오신날 봉축등 '점등'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상의 행복을 발원하는 '사사자삼층석탑등(四獅子三層石塔燈)'이 서울의 중심 광화문을 환하게 밝혔다. 불기 2560(201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지난 20일 광화문 광장 봉축장엄등 점등으로 성대히 막을 올렸다. 봉축 장엄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5만 여개의 가로연등도 서울 전역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날 봉축위원장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밝은 등불을 밝혀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실천으로 그 길을 열어갈 것을 발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청년들이 용기 내어 힘찬 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더 밝은 사회를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공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미치어 함께 이익 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참된 의미"라고 역설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은 축원을 통해 국가의 평안과 국민행복 증진을 기원했다. 점등식에 이어 사부대중 2000여 명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탑돌이를 진행했다.

전통등 연구회에서 제작한 사사자삼층석탑등은 부처님오신날 다음날인 5월15일까지 광화문 광장을 환하게 밝힌다. 점등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2000여명이 함께했다. 점등식을 처음 봤다는 안나 월드(27, 미국)씨는 "등을 밝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행복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 즐겁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 밝히기는 부처님 재세 시부터 전해오는 불교의 고유한 전통이다. 사사자삼층석탑등은 국보 제35호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을 원형으로 전통 한지로 네 마리의 사자가 탑을 받드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특히 올해는 사사자탑등 사방으로 주악비천등 4점을 새롭게 전시했다. 불교에서 사자는 모든 삿된 견해를 물리치는 용맹함과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며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獅子吼)로 표현하기도 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환수위원회 29일 조계사~서울시청 한전부지 개발 중단 촉구 '삼보일배'

1970년 군사정권시절 불법 강탈당한 봉은사 소유 토지 10만평을 환수하고 옛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삼보일배가 펼쳐진다.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2시부터 서울 조계사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보일배를 한다. 이후 정진법당 앞에서 성명서 및 동참자 소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환수위원회는 1970년 정부가 불법 강탈한 한전부지를 원소유주인 봉은사 사부대중의 품으로 환수하기 위해 지난 2월3일 출범했다. 환수위는 3월2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차 한전부지 환수 기원법회'를 봉행했으며,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인허가 절차 중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어 4월7일에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500여 명이 모여 현대그룹의 한전부지 개발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불교계 요구에 대해 서울시 및 현대차 등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현대차는 '부지매매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는 어떠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전부지 환수위는 "봉은사 토지 10만평 환수는 불법 강탈에 대한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불교의 정체성과 자존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상공부 및 산하기관 10곳 이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빼앗아 갔지만 실제 청사 등은 이전되지 않았고 불교계를 기망한 사실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한전부지를 매입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통지받았음에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현대차 또한 불법강탈 토지의 승계인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일광스님의 사랑하기 좋은날

도반의 꽃내음

출타하고 돌아오는 길 문득 산을 바라보니 진달래와 벚꽃이 봄산에 꽃물을 들이고 있었다. 문득 꽃을 좋아하는 도반이 생각나 기별을 넣고 도착하니 마당 한 켠에 다소곳이 핀 노란 수선화가 나를 먼저 반겨주었다. 법당에는 봄의 왈츠가 은은히 흐르고 있어 내 발걸음마저도 사뿐하다. 단(壇)에 꽂아둔 꽃은 향심(向心)이 느껴져 한 눈에 봐도 도반 솜씨임을 알 것 같다. 꽃과 음악이 봄산처럼 조화롭다.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을 뵈니 음악 감상을 하시는 듯 화사한 웃음에 나도 따라 기분이 좋아진다.

부처님전에 꽃을 꽂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도반은 계절 꽃을 구해다가 이 꽃은 이렇게 꽂고 저 꽃은 저렇게 꽂으면 예쁘겠다는 짐작으로 꽃꽂이가 저절로 된다고 한다. 조금만 사야지! 마음먹고 꽃시장을 가건 만도 꽃들이 '저를 데려가 주세요. 부처님 전에 가고 싶어요'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 금세 한 아름이 된단다. 부처님전에 어떤 꽃을 올릴까 고르는 도반의 행복한 얼굴이 눈앞에서 그려진다.

도반은 저녁을 먹고 가라며 쟁여둔 산나물을 꺼내 데쳐놓고 익숙한 솜씨로 된장을 바글바글 끓여낸다. 쌈을 싸 한입에 넣으니 봄기운이 온 몸 가득 퍼진다. 수선스럽지도 소홀하지도 않으면서 흔연히 맞아주는 도반의 거동을 보면서 〈초발심자경문〉의 '견빈객(見賓客)이어든 수흔연영접(須欣然迎接)' 즉 '객을 대할 때는 모름지기 흔연하게 맞이하라'는 구절이 저절로 생각난다. 오랜만에 도반을 만나니 내 마음에도 봄비가 내린 듯 촉촉해진다. 세월이 가면서 한결 여유로워지고 신심 있게 살아가는 도반을 보는 것도 맑은 행복임을 알겠다.

겨울엔 대웅전 꽃 창살에 드는 햇살로 꽃들을 피워 공양 올리고, 봄이면 향기로운 꽃향기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도반의 뜨락은 지금 울긋불긋 꽃대궐이다.

거창 죽림정사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창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 뉴욕 불광선원 20주년 법회 7면

석지현, 《벽암록》에 이어
《종용록》 역주 해설본 출간!
국내 최초

종용록
칭기즈칸의 참모 야율초재 최초 간행!
중국의 역사와 사상을 총망라한
지혜의 보고!

전5권 값: 18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펴냄
(낱권 판매 불가)

선어록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

벽암록
전5권 값: 14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펴냄

선시감상사전
석지현,
선시 감상의 최고 안내서
《선시감상사전》
20년 만에 재출간!

전 2권 한국편 값 : 58,000원 // 중국·일본편 값 : 38,000원 // 4*6판 양장 // 민족사 펴냄

한국·중국·일본의 선자禪者와 시인 306명의
작품 1,431편의 선시를 한눈에!

선시禪詩란 무엇인가?
"언어를 거부하는 '선'과 언어를 전제로 하는 '시'의 이상적 만남!"
선禪은 언어를 부정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자칫하면 저 관념의 바다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깨달음의 섬세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하여 선사들은 시詩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편저자 석지현 釋智賢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73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이후 인도, 네팔, 티베트 등지를 방랑. 편·저·역서로는 『禪詩』, 『바가바드 기따』, 『우파니샤드』, 『벽암록』(전5권), 『종용록』(전5권) 등이 있다.